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1 세기 넘게 여성으로만 구성된 극단으로 일본 관객을 매료해 왔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은 서양식 뮤지컬, 프랑스의 카바레, 라인 댄스가 혼합된 스타일로 정교하게 짜인 안무와 깃털이 달린 화려하고 호화로운 의상이 특징입니다. 일본 전국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열광적인 팬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한큐 전철의 창업자이자 사장이었던 고바야시 이치조(1873~1957)는 1913년 효고현 다카라즈카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가창 그룹 다카라즈카 창가대를 설립했습니다. 1914년 4월 1일, 이 단체는 남성만으로 공연되는 노(能: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상연되는 극)나 가부키(歌舞伎: 음악과 무용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본 전통극)와는 대조적으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출연진으로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1918년에 도쿄에서 첫 공연을 가졌고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1919년 고바야시는 현재의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인 다카라즈카 음악가극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다카라즈카 가극에 출연하는 것을 꿈꾸는 15세에서 18세의 여성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그 후 무대에 서기까지 몇 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1924년에 효고현 다카라즈카에 다카라즈카 대극장이 문을 열었고, 1934년 1월 1일에는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이 히비야에 탄생했습니다.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이 개장할 때까지 공연은 모두 데이코쿠 극장과 가부키자 극장 등의 공연장을 빌려 이뤄졌습니다. 이 극장의 개장은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으며, 그 후 모든 공연을 하는 극장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곳의 다카라즈카 극장은 모두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은 어니 파일(Ernie Pyle) 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연합국의 관리하에 놓였습니다. 1955년에 이름과 그룹, 무대를 원래대로 되찾을 때까지 임대 극장에서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옛 건물은 1998년에 노후화로 철거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2001년에 개장했습니다.

레드카펫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도쿄 다카라즈카 극장은 일본 극장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입니다. 홀은 2,065석으로 어느 자리에 앉아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효고의 다카라즈카

대극장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공연은 다카라즈카 대극장에서 초연이 행해진 약 2주 후에 이곳에서 상연됩니다. 뮤지컬, 가극, 연극이 하루에 1, 2회 진행되며, 만석을 이룬 관객들 앞에서 상연됩니다. 다카라즈카의 대부분 작품이 서양의 고전적인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 소설, 영화 등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순정 만화나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창의적이면서 꿈 같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공연 티켓은 금방 매진됩니다. 극장은 도쿄의 극장 구역인 히비야의 중심부, 임페리얼 호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히비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